

## 윤영인, “10-12세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와 한중관계”

발제: 김헌준

-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를 Chinese world order, tribute system으로 보는 Fairbank의 문화론(culturalism) 시각에서 벗어나야 함
- 이 시각을 벗기면 국가간 형성된 **다원적 국제관계의 세력균형, 실리주의, 호혜주의**의 실상이 드러남
- 10-12세기 한중관계를 고려-송, 거란-고려 (일련의 양자관계)의 조공체제의 틀로 이해해서 안 됨 - 조공·책봉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(?) 탐구
- 유교사상에 근거한 명목적 국제질서의 범위를 경제·문화권과 일치시켜서는 안 됨 - 새로운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범위 설정(?)

### II. 10-12세기 다원적 국제질서

- 조공체제에 대한 이념적 집착이 있는 이유
- > 현재의 거란과 충돌하면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실현에 실패한 송나라가 “이상적인 조공체제를 상상·조작”함 (예: 기미, 회유 등 특정 단어를 사용)
- 대표적인 예로 송-고려간 충돌이 없는 이유가 조공체제와 문화적 유대감
- > 실질적으로 고려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실리주의를 추구 (송은 거란, 금, 일본 등과 함께 대외 접촉의 대상 중 하나)
- > 거란이라는 공통의 적 때문에 잠재적 동맹국으로 봄 (세력균형적 요소, 실리주의)
- 다원적 국제질서
- > 북방민족의 정복왕조 역할이 중요: 이원적 통치체제 유지, 정복과 평화 (맹약)
- > 10-12세기 모습: 북방민족 + 한족왕조 (강력한 군사력 보유) + 주위 (고려, 대하, 남조, 티베트, 북방 부족들)
- > 중원에 위치한 국가들의 충돌 (대하-송-거란)을 보면 조공체제와 맞지 않는 점이 보임
  1. 대하의 칭황제: 거란은 크게 집착하지 않음
  2. 송-대하 충돌시 수세 몰린 송이 거란에서 세폐가 아닌 공(貢) 사용
  3. 송-대하와의 관계에서 서표(誓表)와 서조(誓詔)라는 혼성적 외교문서 사용
  4. 거란의 대하 침략 실패: 고려, 송과 국경을 맞대로 있어 전력투구 못함
  5. 송의 연운 16주 회복 시도: 조공체제 회복이 아닌 거란에의 복수와 실지 수복
  6. 거란 정복 후 금도 다원적 국제질서 바꾸지 못함: 거란을 지원한 대하와 충돌 피함, 고려가 압록강 유역 보수성 점령한 후에도 고려와의 충돌 피함
  7. 남송 초기이 고려의 실리주의 정책에 실망해 고려와의 공식적인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

### III. 10-12세기 '한중(고려와 거란·금)관계의 특징

- 고려의 대외관계는 조공체제가 아닌 상호불간섭, 호혜주의, 실리주의를 보여줌
- 예1: 고려와 송
  - > 송이 고려에게 조공에 대해 후하게 보상했으나 한번도 송의 군사동맹 제의 수용하지 않음
  - > 송이 고려 사신에 대한 대우 격상 시도 (고려 거부), 숙종과 인종 책봉 제의 (거부)
  - > 고려는 대신, 송이 금과 연합하여 거란치려는 정책 반대, 금과 남송 사이 중립 지킴
  - > 결국, 전쟁이 없던 이유는 (1)정복왕조라는 공통의 적과 (2)양국간에 육지 국경이 없음
- 예2: 거란과 고려, 금과 고려
  - > 조공-책봉 관계가 상호 호혜적임: 고려의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식관계를 끊음
  - > 상호 사신을 보냄, 고려의 안보와 직결된 압록강 유역에서의 접촉은 금함
  - > 고려 인종 이자겸과 묘청의 난으로 어지러울 때 금은 내정 간섭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개입 정책
  - > 고려와 금의 조공 내용 또한 경제적 가치보다 상징적 의미가 큼 (큰 부담이 안 됨)

### IV. 10-12세기 '동아시아' 국제관계 범위 설정

- 역사연구에서의 범위 설정은 인식상의 문제로 자칫하면, 비역사적(ahistorical)이고 현재주의적(presentist) 오류에 빠짐
- 체계적인 공적 교류의 기록인 조공체계 (문화적 유사성)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“충돌과 전쟁의 요소” 또한 보아야 함
- 기존 시각
  1. Fairbank: inner Asian Zone, Outer Zone, Sinic Zone
  2. Leyard: 중원-만주-한국
  3. Barfield: 중원, 초원(몽골지역), 삼림과 초원 문명(만주)
- 조공체제의 용어와 형식이 적용되었던 것보다 확대된 지역 - 세계체제론
  - 사회 사이에 다양한 연계망을 통해 일어나는 무역, 전쟁, 정보 등의 상호작용이 복합적인 사회구조 창조
  - 구성요소
    - 생필품 연계망 (Bulk Good Network, BGN)
    - 사치품 연계망 (Prestige Good Network, PGN)
    - 정치·군사 연계망 (Political Military Network, PMN)- 조공체제와 다른 점
    - 정보 연계망 (Information Network, IN)
  - 체제 변혁에 있어 주변방(semi-periphery)역할 강조: 성격 혼합, 양쪽 연결, 지배-피지배의 위상 변화 --> 거란과 금이 흥기한 만주지역, 시기따라 한반도

- PMN으로 보면, 북방초원, 중원, 내륙아시아, 한국, 일본, 동남아 지역 (조공 초월)
- PGN/IN은 사적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큰 규모
- 그러므로, 동아시아의 범위 설정은 PMN과 PGN/IN의 범위를 비교·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설정할 수 있음

## 시사점

1. 일단 기존에 논의된 조공-책봉관계의 틀로 보는 것의 문제점이 반복 논의
  - 가. 조공체제로 보는 것의 문제점 지적은 타당
  - 나. 그렇다고 해서 “다원적 국제관계”, “세력균형”, “실리주의”, “호혜주의”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
    - 1) 일단 다원적 국제관계라는 개념이 불분명함 (행위자가 많음은 알겠는데 어떤 구조와 행위자의 행위가 있는지는 설명이 안 됨)
    - 2) 현재 개념인 세력균형, 실리주의, 호혜주의로 쓰는 것의 문제
    - 3) 새로운 이론적 가능성을 탐구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무리임
2. 조공체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공체제의 여러 요소들이 혼재되고 헛갈리고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(1) 일단 그 당시 형식적으로나마 남아 있었고 유지되었으며, (2) 이후 명청대에 와서 다시 복구되었다는 점은 조공체제의 힘과 정통성을 보여줌
  - 가. 조공체제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조공체제를 아우르는 이론적 틀의 가능성
  - 나. 세계체제론에서 PMN과 PGN/IN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“어떻게”라는 문제